제주엄마들 10명중 7명 일-육아 병행

제주 미성년 자녀와 사는 여성 고용률 67.8%
기혼여성 10명중 1명꼴 육아 문제로 직장 사직

지난 한햇동안 제주지역의 미성년자를 둔 여성인구는 전체적으로 2000명 늘었지만 취업여성은 반대로 2000명 가량 감소했다. 육아 등의 문제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취업여성의 고용률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지만, 취업률은 부동의 전국 1위를 고수하며 일과 자녀 양육에 따른 제주여성들의 고달픈 삶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의 만 15~5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청의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6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64.2%), 충북(6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워킹맘'이 자녀 수가 많거나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일용직 비중도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자녀동거여성은 6만8000명이며 이 가운데 5만명이 취업여성이다. 미성년자를 둔 제주엄마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이 일과 양육, 두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자녀동거여성은 7만명으로 2000명이 늘어난 반면 취업여성은 2000명이 줄며 4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고용률은 지난해 73.3%(전국평균 56.7%)에서 올해 67.8%(57.0%)로 5.5%p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0.3%p 증가한 것과 달리 제주는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대구(-3.0%p)와 충남(-2.5%p), 대전(-1.7%p) 등의 감소폭이 대체적으로 컸다.

한편 올 4월 기준,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은 만15~54세 기혼여성 11만5000명 가운데 11.7%에 이른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자녀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비취업여성은 3만1000명이며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보다 1000명이 늘어난 1만3000명이다.

경력단절여성은 기혼여성 가운데 현재 비취업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리얼미터, 11월 도지사·교육감 직무수행평가

원희룡 지사 4위- 이석문 교육감 3위

주민생활만족도 조사
제주 17개 시도중 3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직무수행평가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2019년 11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르면 1위는 전남 김영록 도지사로, 긍정평가('잘한다')가 62.4%로 한 달 전 10월 조사 대비 1.7%p 내렸으나 7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3%p 오른 56.0%로 한 순위 오른 2위,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월과 동률인 55.9%로 한 순위 내린 3위로 조사됐다.

이어 제주 원희룡 지사(53.0%)가 두 순위 오른 4위, 경기 이재명 지사(49.3%)가 네 순위 오른 5위, 충남 양승조 지사(48.1%)가 네 순위 오른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는 전남 장석웅 교육감의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이 51.4%로 10월 조사 대비 1.8%p 내렸으나 7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1%p 오른 45.2%로 다섯 순위 오르며 4개월 만에 2위에 올라섰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2.8%p 오른 45.0%로, 두 순위 상승한 3위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톱3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광주 장휘국 교육감(44.4%)이 두 순위 내린 4위, 경북 임종식 교육감(43.3%)이 세 순위 오른 5위, 대전 설동호 교육감(42.9%)이 두 순위 내린 6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전국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라남도가 10월 조사 대비 1.5%p 오른 65.2%의 만족도로 7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0.5%p 내린 62.9%로 2위를 유지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3.2%p 오른 62.6%로 한 순위 오른 3위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60.7%)가 한 순위 내린 4위, 경기(58.8%)가 5위, 다섯 순위 오른 인천(53.9%)과 네 순위 오른 대전(53.9%)이 공동 6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조상윤기자

오름·올레길 공중화장실 LED 태양광등으로 설치

제주시는 공중화장실 범죄 우려로 야간 이용객의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안심화장실을 조성코자 오름 및 올레길 어두운 공중화장실 외부에 LED 태양광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셉테드기법)'를 활용해 야간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에게 밝은 분위기의 공중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편안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LED 태양광등은 낮 시간에 태양광을 축전해 야간에 별도전력 없이도 조명을 켤수 있으며, 전력선의 연결이 어려운 공간에서도 야간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주시는 2020년 1월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오름 및 올레길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야간 이용이 불편한 공중화장실 50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손에 잡힐듯한 남해안 섬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해안 갯바위 너머로 남해안 일부 섬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시속 160km로 달리며 지그재그 추월

제주경찰 '암행순찰차' 운영 두달만에 난폭운전 등 108건 적발

신호위반 61건으로 최다

제주경찰이 도입한 '암행순찰차'가 운영 두달만에 중대위반행위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암행순찰차를 운영해 난폭운전 7건, 신호위반 61건, 중앙선침범 21건, 기타 19건 등 총 108건을 단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특히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난폭운전자 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실제로 지난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 번영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은 승용차량 운전자 A씨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제한속도 80㎞를 훌쩍 넘긴 시속 160㎞로 차량을 운행하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량 사이를 여러 차례 추월했다.

당시 번영로 일대를 순찰 중이던 암행순찰차가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기존 순찰차 1대를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모습인 암행순찰차로 개조하고 지난 10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암행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 등에 중점 배치되고 있다. 암행순찰차에는 달리면서도 위반 차량의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설치됐는데 실시간 영상녹화도 이뤄져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고질적 중대위반 행위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석기자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인 수 오늘 결정

도체육회선관위 4차 회의

첫 민선 제주도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의 선거인 수가 오늘(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3차 회의에서 선거인 수 결정·배정에 대한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일 오전 11시 4차 회의를 열어 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6일 회의에선 선거인 수 결정과 배정을 비롯해 투표 시간과 장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와 소견발표 등에 대한 사항이 논의됐다"며 "4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이 결정되면 선관위 위원장이 직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인 수가 결정되면 오는 11일까지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가 통보되며, 이달 21일까진 선거인 후보자 추천이 마감된다.

김지은기자

서귀포시 협약 사이버대학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서귀포시와 협약을 맺은 4개 사이버대학교(경희·세종·숭실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이달 1일부터 2020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경희·세종·숭실 사이버대학은 내년 1월 10일까지, 서울디지털대학은 1월 14일까지다.

이들 4개 사이버대학교는 서귀포시와 업무협약에 따라 시민에 한해 학부과정 입학금 30만원 면제(경희·숭실·서울디지털)와 정규학기 수업료 20~30% 감면하는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 등 46명이 4개 사이버대학교에 지원·접수해 혜택을 받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